

고흥·무안·여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가 등재 유력

자문기구서 '권고' 판단
내달 부산서 최종 확정
2021년 등재 포함 총 6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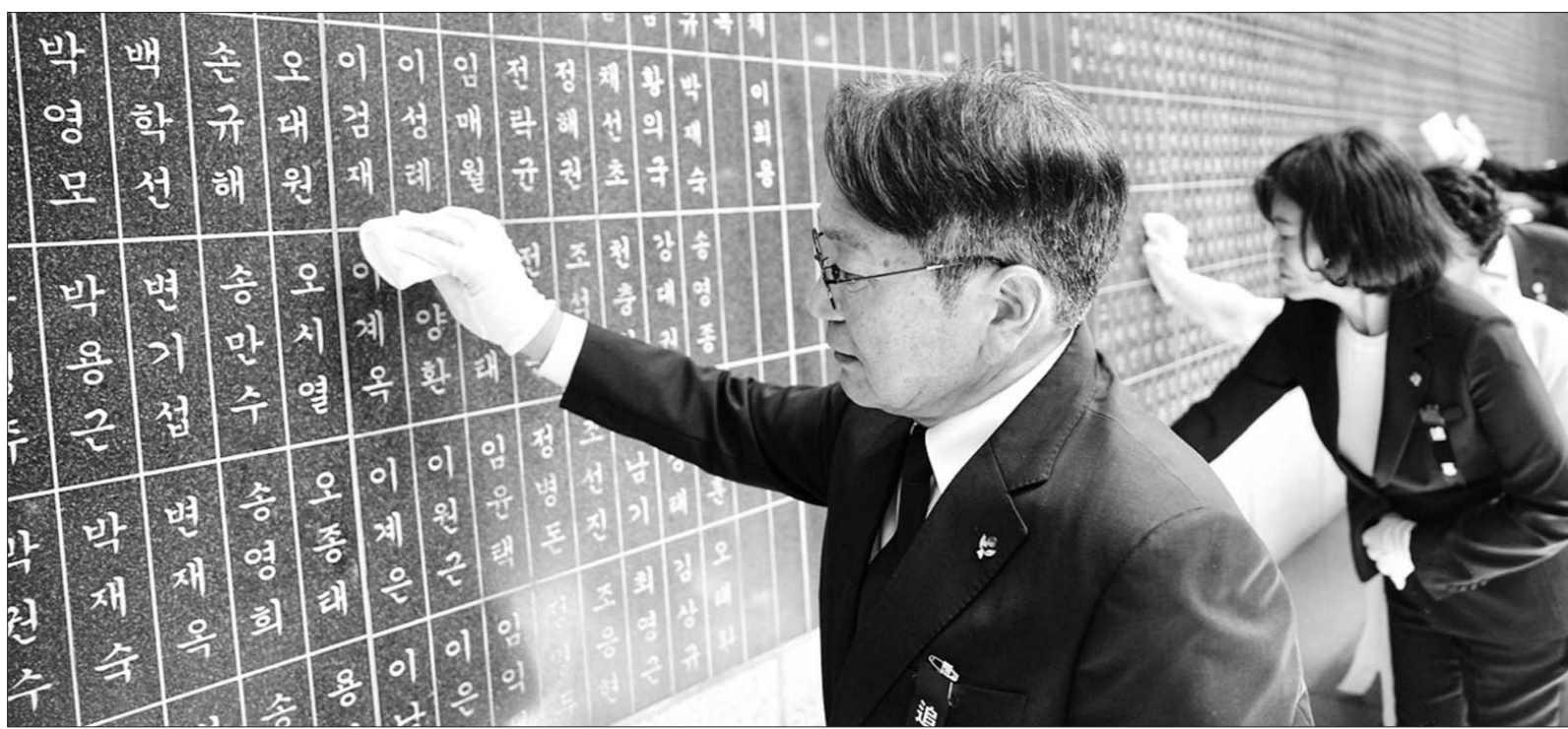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로 여겨지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될 전망이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의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 II)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

합유산으로 나뉘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와 IUCN이 각국이 신청한 후보 유산을 심사한다. 이들 자문기구는 '등재'·'보류'·'반려'·'등재 불가' 등의 권고안 가운데 하나를 택해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

은 이번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한국의 갯벌 2단계'의 경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000여 종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동아시아~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확대 등재에 도전하는 곳은 충남 서산과 전남 고흥·무안·여수 갯벌이다.

기초에 등재된 서천 갯벌과 전북 고창 갯벌, 보성·순천 갯벌도 물새의 이동 범위와 서식 공간을 포괄하도록 안중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IUCN 측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즉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확대된 '한국의 갯벌'은 서남해안 갯벌을 아우를 전망이다. 2단계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탄도만 갯벌 △무안-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서산갯벌 등 총 6곳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반구전역의 암각화'를 대표목록에 올렸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6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광주공영 위패봉안소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에 위패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시장, 중국 방문...판다 유치·AI활성화 협력

12일까지 하얼빈·베이징·우한시와 교류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역사·문화 교류와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중국 하얼빈, 베이징, 우한을 차례로 방문한다. 광주 출신으로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활동했던 음악가 정윤성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AI·모빌리티 분야 협력 기반을 넓힌다. 정윤성 선생의 예술혼이 깃든 하얼빈을 방문,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왕허성 하얼빈 시장을 만나 정윤성과 안중근이라는 항일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상호 문화적 신뢰 방안을 협의한다. 베이징에서는 정윤성 선생의 딸 정소제 여사를

만난다. 정윤성 선생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예술적 유산을 계승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중국의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하는 중국문화예술계연합회를 방문해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120년 역사를 간직한 베이징동물원 '판다관'을 방문해 생태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도시브랜드 제고 사례를 배운다. 우호협력도시인 우한에서는 미래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현장 시찰과 기업인과의 교류 활동을 한다. 대표단은 사모이 스마트공장의 무인 자동 공정과 휴머노이드 로봇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제조 혁신과 로봇 상용화 생태계를 살펴보고, 광주 AI 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순국선열·호국영령 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장흥서 보훈가족 등 400여명 참여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전남도가 지난 6일 장흥군 총합탑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성 장흥군수, 고승범 제3함대사령관, 전남지역 보훈단체장, 보훈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도지사 표창 수여, 추념사,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전에 열린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의 추모곡 '내 영혼 바랍되어', '비록' 등은 나라와 국

민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닦을 위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참된 보훈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시작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훈특별시가 돼, 애국이 평생의 자부심으로 남고 그 명예가 대를 이어 존경받는 곳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tbul@gwangnam.co.kr

"막힌 빗물받이 등 신고하세요"...광주시, 신고 기간 운영

8~30일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광주시는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맞아 8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시민 참여형 '우리동네 빗물받이 정비 신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호우·태풍, 산사태,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시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막힘·덮임 등 빗물받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게 해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서 광주시역 빗물받이 막힘·덮임 현장을 신고한 뒤, 발급된 신고번호와 경품 발송용 개인정보를 이벤트 페이지(naver.me/GT44eJC)에 제출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광주경찰청 | 전남남도경찰청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정보통신원 | GTCL |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구원